

그 많던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 어디로 갔을까



구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면 10억~20억 원은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철거한 놀이기구를 처분할 권한을 주면 2억~3억 원을 대공원 측에 지급하겠다는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업자가 있었다. 변호사에게 자문해 얻은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안전진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놀이기구가 재사용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판매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불량 놀이기구'를 파는 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폐기물을 소재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정크 아트 전문가에게 소재로 제공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놀이기구가 예술작품으로 되살아나면 추억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규모가 큰 놀이기구를 해체하면 상징성이 훼손돼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적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놀이기구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철거된 놀이기구를 대체할 '최신식 놀이기구' 9종은 내년 4월에 놀이동산에 들어온다. 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제작되는 놀이기구가 차례차례 들어올 예정이다. 1세대 놀이기구는 퇴역했지만 이제 2세대 놀이기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순효주

그곳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들어서서도 1km는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정문을 지날 때부터 마음이 부풀 대로 부푼 아이들은 숨이 차는 것도 잊은 채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이 가까워질수록 쇠뿔이 금속을 통과하는 듯한 굉음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까악~" 하는 비명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놀이동산'이란 낱말이 나타나고 그 너머 2만5701m²(약 7770평) 땅엔 당시로선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고개를 위로 쫓히면 88열차를 실은 길이 587m 케도가 공중에서 굽어졌다. 24인승 88열차는 최고 시속 80km를 자랑하며 아이들 비명을 동력삼아 하루 130회 곡예를 펼쳤다. 1973년 설치된 청룡열차를 대신해 1984년에 등지를 튼 '최신식 놀이기구' 88열차는 15명씩 한 열을 만들어 줄을 서고도 줄이 놀이동산 바깥까지 이어질 정도로 인기였다.

그보다 한 해 전인 1983년 설치된 바이킹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다. 사람들은 서울 시내 놀이동산 중 최초로 설치된 40인승 바이킹에 오르려고 2시간을 기다렸다. 놀이동산에서 30년째 근무한 홍현순 어린이대공원아이랜드 본부장은 "초기 4, 5년간은 바이킹을 처음 타 본 사람들이 구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했다.

같은 시기 설치된 대관람차는 밤이면 아이들보다 연인이 많았다. 1980년대 연인들은 대관람차가 운행하는 6분 동안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키스를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려왔다. 이 놀이기구들은 놀이동산을 위탁 운영했던 동마기업이 1983~1995년 들어온 놀이기구 9종 중의 대표주자들이었다.

잡근잡근 분해된 88열차 케도

16일 오후 기자가 찾은 놀이동산에는 놀이기구 9종이 한 대도 없었다. 소형 놀이기구 몇몇 만이 놀이동산 한편을 지키고 있었다. 놀이기구가 있던 자리에는 잡초가 자라 황량함을 더했다.

3월 28일 놀이동산엔 대형 크레인 두 대와 포클레인 한 대 등 철거 장비가 들어왔다. 산소절단기 불꽃이 튀더니 88열차 케도가 1, 2m 간격으로 '잡근잡근' 잘렸다. 30년을 지켰던 케도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바이킹 배는 땅으로 얹어졌고 역시 1, 2m 간격으로 절단됐다. 대관람차와 파도그네도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잘게 잘렸다.

놀이공원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안전학회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2011년 11월 회의를 열어 놀이기구 9종에 대해 시한부 생명을 선고했다. 노후화가 심해 2012년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였다. 박상규 어린이대공원 원장은 "추억이 담긴 만큼 최대한 고쳐 쓰려고도 해봤지만 어떠한 보수도 무의미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했다.

지난해 7월 1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놀이동산이 문을 닫은 이

후에도 놀이기구의 추억을 남기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먼저 논의된 건 놀이기구 매각. 놀이기구 무역상을 자처한 '업자'들이 찾아와 "놀이기구를 팔아넘기라"며 끈질기게 달려붙었다. 놀이기

취하지 않으면 그만? 여학생 '과음' 잦다

여대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음주벽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흔히 남학생의 음주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는 여학생들의 적정(한도) 음주량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992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 분석한 것인데 이 중 575명이 여학생이었으며 417명이 남학생이었다.

조사에 응한 남녀 학생 중 3분의 2가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적정 음주량을 초과했다. 한도량을 초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학생은 45%인 데 비해 여학생은 51%였다. 15%의 여학생들이 주간 적정 음주량을 초과했는데 이는 남학생의 12%가 적정 음주량을 초과한 것보다 높은 수치였다.

게다가 1년간 음주량 추이를 관찰 때 남학생들은 점차 주간



음주량이 줄어드는 반면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이끈 베티나 회프너 교수는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적게 마시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더 적게 마셔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면서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 문제"라고 말했다. 회프너 박사는 "그러나 매일 저녁 와인 한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주간 적정 음주량을 초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 알코올남용 연구소는 매일 석 잔 혹은 일주일에 7잔을 '낮은 위험 수준'의 음주'로 규정하는데 여학생은 7잔으로 남학생의 14잔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알코올을 체내에서 신진대사 시키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은 더 적은 알코올 섭취량으로도 유방암이나 간 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약물 전문가인 마르크 갈란더 박사 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의 음주량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성보다 음주에 취약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알코올중독: 임상 및 실험 연구(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에 실렸으며 헬스데이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수지, '성년의 날' 기념 화사한 장미꽃 축하인사



▲ 미스아이 수지가 성년의 날을 맞아 장미꽃다발을 들고 축하인증사진을 찍으며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다. MBC 월화극 '구가의 서'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지가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축하인사를 했다.

강남미인성형외과
GANGNAM MIIN
PLASTIC SURGERY

한민족신문 제휴 병원

나만의 강남스타일!

나는 나의 Stylish!!

제한중국동포들에 특별한혜택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키로

1 나만의 Style 섹션 만들기
Fitting 눈성형, 코성형, 쌍구 이마 만들기, V-라인 만들기, 탄력 있는 피부 만들기

2 동안 만들기 PROJECT
간단 동안 성형, Ten 10성형, 특별한 주사.스컬트라

3 실루엣 바디라인 만들기
가슴성형, 지방흡입, 복부성형, 여성성형

진료시간 안내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3시

전문상담
02)522-0522
010-2907-1082

오시는 길
지하철3호선 압구정역4번출구로 나오셔서 곧바로 우측으로 오시다(10m)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50m 오시면 강남미인성형외과가 보입니다.